

## 한국대형교회의 ‘사사화’에 관한 재해석:

-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유광석, Daniel Connolly, 김은기\*\*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한국대형교회의 사사화 측면들
  - 1. 교권독점
  - 2. 세습화
  - 3. 대형화
  - 4. 재정관리
  - 5. 정교유착
- IV.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사사화
- V. 결론

### I. 서론

최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 국민일보를 둘러싸고 시작된 조용기 목사의 두 아들 조희준, 조민제 형제의 갈등에서 비롯된 폭로전을 통해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산까지도 조용기 목사 일가에 의해 상당 부분 사유화되고 있었던 것이 주요 언론을 통해 꾸준히 조명되었다 1). 1958년 서울 대조동에서 천막 교회

\* 본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330-2012S1A3A2033608).

\*\* 주 저자(유광석):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e-mail: ksyooii@snu.ac.kr  
교신저자(김은기):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e-mail: aekim@korea.ac.kr  
공동저자(Daniel Connolly): 고려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로 시작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73년 8월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성장과정에 있어서도 유래 없는 빠른 성장속도로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오늘날 단일교회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확보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단기간에 급성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용기 목사 스스로가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중의 종교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장모 최자실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 또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성장한 대형교회가 이제는 가족들의 비리로 문제가 불거져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교회의 사사화(privatization)는 비단 재정적 문제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금란교회의 김홍도목사,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 임마누엘교회의 김국도 목사는 형제관계로서 모두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 유명하다. 우선 김홍도 목사는 교회공금 32억 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의 선고<sup>2)</sup>를 받았고, 이후 목사직을 사임하고 막내아들인 김정민 목사에게 담임목사자리를 세습하였다. 김선도 목사 역시 아들 김정석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청의 등록 없이 유치원 형태의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유아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으로 고발되었다.<sup>3)</sup> 임마누엘교회의 김국도 목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감리교세습방지법의 허점을 활용하여 자신은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이완목사를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한 후 1달여 만에 자신의 아들인 김정국목사를 임마누엘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서 2013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세습이 확인된 교회는 61곳이고, 진행 중인 교회도 22곳이며, 그 가운데 28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단 총회장, 감리교 감독,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회장 출신으로서 길자연 목사의 왕성교회, 현 회장인 홍재철 목사의 경서교회, 명성교회(담임 김삼환 목사), 연세중앙교회(윤석전 목사) 등 1만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교회에서도 아들이나 사위에게 세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up>4)</sup> 그 밖에도 강남구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약 2000평의 대지 위에 3100억 여 원을 들여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서초구청과 서울시로부터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유, 지하철 출입구의 교회 연결, 부지내 공공도로 폐지 등 상당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

1) <기자협회보> 2013.6.30; <한국일보> 2014.10.27; <한겨레> 2014.8.22.

2) <경향신문> 2006.5.15.

3) <한국일보> 2012.11.20.

4) <한국일보> 2013.8.22.

다.<sup>5)</sup>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대형교회들의 다양한 사사화 현상의 대표적 사례들로서 담임목사제도를 먼저 고찰한다. 개척교회에서 출발하여 큰 성장을 이룬 담임목사들은 강한 주인의식으로 교회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여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사유화되고 점점 더 대형화되면서 문어발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자식에게 세습되기에 이른다. 더불어 친인척을 중심으로 개척한 교회의 회계 및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제적 일탈도 만연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경제적인 힘에 기초한 대형교회의 정치적 및 경제적 성장을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사화의 개념과 카사노바(Jose Casanova)나 하버마스(J. Habermas)가 소개한 공적종교(public religion)와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한 쟁점들을 먼저 논의하고 대형교회의 사사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불리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한국대형교회의 교직세습, 교회재산의 임의적 전용 및 세금회피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성장 과정과 그 유형적 특징들을 나열하고 대형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sup>6)</sup>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풍요로운 대형교회들의 내적 조건과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러한 연구들은 한국종교시장의 중요한 행위자들로서 대형교회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들이며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대형교회들의 내적 및 외적 문제들의 본질을 하나의 종교현상으로서 가치중립적이고 일관된 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와 '공적 종교(public religion)' 개념으

5) <조선일보> 2011.3.24; <한겨레> 2011.3.24.

6) 서우석, 「중산층 대형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28 (1994); 최우영, 「한국종교단체의 특질: 개신교회의 성장과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2003);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38(3) (2013); 장형철, 「종교와 사회적 자본- 한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7(1·2) (2013); 최현중,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종교와 문화』 26 (2014).

로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한계들을 보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현대대형교회들의 종교사회학적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사사화와 공적종교의 개념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널리 애용되고,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종교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원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들의 해석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 신학적 관점의 논문들은 별론으로 하고, 종교사회학적 관점의 연구들에서 종교의 ‘사사화’는 대체로 종교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하는 부정적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sup>7)</sup> ‘공적 종교’는 다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sup>8)</sup> ‘사사화(私事化)’와 ‘사유화(私有化)’가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sup>9)10)</sup>

잘 알려진 것처럼 종교의 사사화는 세속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피터 버거(Peter L. Berger)에 의해 일찍부터 세속화 명제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서 사용되었다. 버거의 세속화 명제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발전과 합리화의 증대로 인해 종교는 공적 영역에서 점차 퇴출되고 사적 영역에서만 의미 있는 것으로 남는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러나 같은 세속화 명제를 지지하면서도 루크만(Thomas Luckmann)은 종교의 점진적 쇠퇴라는 버거식의 세속화 개념을 거부하고, 종교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쇠퇴가 아니라 개인적이면서 사적인 종교의 변질을 강조했다.<sup>12)</sup>

이후 사사화는 세속화 명제의 주요한 개념 요소로서 종교사회학 일반에서 지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의 대표적 특징으로서 크게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카사노바(Jose Casanova)는 세속화 명제를 기본적으로 지

7)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36; 장형철, 「종교와 사회적 자본- 한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96.

8) 최현중,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참고.

9) 저자의 생각으로는 종교의 ‘사사화’와 ‘사유화’는 같은 영어 단어(privatization)의 번역어이지만 그 의미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유화’는 일반적으로 소유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반면에, ‘사사화’는 행위의 기능을 기준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privatization’이 어떻게 불리든 ‘사사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0) 정태식, 「공적 종교로서의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상과 인식』 33(1·2) (2009), 42;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34; 이원규,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의 과제는 무엇인가?: 공동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649, 2013, 28.

11)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New York: Anchor Books, [1967]1990), 127-153.

12) Thomas Luckmann, *The Invisible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74).

지하면서도 이러한 사사화 현상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공존하는 '탈사사화(deprivatization)' 현상을 그의 유명한 저서 『현대세계에서의 공공종교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1994)에서 5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루크만의 사사화 개념을 재비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세속화 명제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1) 교회와 국가의 기능적 분화 2) 현대사회에서 종교성의 활력과 호소력 상실 3)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축소된 종교의 역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정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스페인, 폴란드, 브라질의 가톨릭 교회와 미국의 가톨릭 및 복음주의 개신교는 시민사회의 공적 담론 영역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교구적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간적 가치를 수호하고, 현대사회의 정치적 및 도덕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종교의 탈사사화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카사노바의 공적종교 개념은 이후 미국과 이슬람 사회의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2000년대부터는 종교의 탈사사화 명제가 미국 시민사회를 넘어 서유럽사회와 국제정치적 영역으로까지 일반화되고 있다.<sup>13)</sup> 버거의 『세계의 탈세속화: 부흥하는 종교와 세계정치(*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1999)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편성(*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2003)는 이러한 탈사사화 명제 또는 공적 종교 개념의 국제적 확산에 큰 일조를 한 저서들이며, 급기야 종교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하버마스(Jurgen Habermas)와 같은 유럽 사회학자들까지 이제 이 논쟁에 주도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전에는 세속사회로서 당연시 되었던 유럽 나라들에서조차 이제 종교조직들은 세속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 하나의 해석 공동체들로서(communities of interpretation), 즉 공적 담론을 시민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번역하는 주체로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sup>14)</sup> 유럽의 세속적 시민들이 종교적 공동체들의 지속적 현

13) Jose Casanova, "Rethinking Secularizatio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Hedgehog Review* 8(1-2) (2006), 7-22; "Public Religions Revisited," in *Religion: Beyond a Concept*, ed. by Vries H. d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8), 101-109; "The Religious situation in Europe," in *Secularization and the World Religions*, ed. by Wiegandt K, Joas H. and Skinner A.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9), 206-227.

14) Jurgen Habermas,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4(1) (2006), 10-11; "Notes on Post-Secular Society," *New Perspectives Quarterly*

존에 자신들을 적응시켜야 한다는 공적 인식(public consciousness)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속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즉 탈세속사회(post-secular society)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한다.<sup>15)</sup>

이러한 해석은 그가 초기저작에서 종교개혁 이후 종교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적인 것으로 전락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역사적으로 사적 자율성의 영역을 보장한 시초라고 주장했던 것<sup>16)</sup>과는 대조적인 현실 인식으로서, 흥미롭게도 버거가 후기에 세속화 이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반복한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주장을 요약하면, 탈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세속적 시민들은 막스 베버가 주장한 '서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종교적 교리의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세속주의(secularism)에 대한 자기반성을 더욱 더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은 종교의 세속화, 사사화, 탈사사화 및 탈세속사회론의 이론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는 한국대형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하나의 분석사례로서 설명하고 종교의 사사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 III. 한국대형교회의 사사화 측면들

#### 1. 교권독점

한국교회는 1인 지배의 권력편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임목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sup>18)</sup> 대형교회의 경우 담임목사를 주축으로 하여 그 밑으로 여러 명의 부목사들이 배치된다. 부목사직은 일반적으로 1년을 임기로 하는 불안정한 임시직으로서 현실적으로 부목사들은 담임목사가 독점하고 있는 임명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교회운영에 있어서 담임목사의 결정이나 제안에 대해 이견을 표현하는

---

25(4) (2008), 20.

15) Habermas,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19.

16) Jurgen Habermas,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역) (서울: (주)나남출판, [1962]2001), 75.

17) Habermas,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17-18.

18) 이진구,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당대비평』 12 (2000), 236.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담임목사 일인 중심의 지배구조를 기초로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위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부목사들은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담임목사제도에 기반을 둔 교회운영은 담임목사가 교회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누리게 되고, 재산을 증식하듯 교회를 키워가는 대형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성장한 교회내의 각종 금전적 권리와 그에 수반한 사회적 지위는 결국 교회 세습 등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담임목사제도와 교회 직책의 계급적 위계구조는 한국교회에 권위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교회운영에 있어서 담임목사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권한이 한국교회가 권위주의화되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sup>19)</sup> 현재의 교회권력 분배구조상 담임목사는 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와 권한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담임목사가 개교회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권위주의로 귀착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또한 담임목사와 당회의 장로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권력의 충돌은 교회전체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등의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사태가 야기되기도 한다.<sup>20)</sup>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적 상하구조로 인해 권력이 분산되지 못하여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 또한 담임목사가 전적으로 짊어지게 된다. 담임목사의 개인적인 문제나 대외적 실수, 잘못된 언행 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교회와 교인들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막대한 권한과 함께 큰 책임감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sup>21)</sup>

특히 대형교회에서의 위와 같은 현상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개척교회에서 시작되는 한국의 교회 생성 구조는 대형교회에서 담임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22)</sup> 한국에서 개척되는 교회의 과반 수 이상은 담임목회자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개척된다.<sup>23)</sup> 이렇게 개인이 직접 설립하고 개척하는 방식이 한국교회 발전의 전형적인 방법이며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절대 다수가 취한 형태이다. 한국의 교회는 1960-8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도모한다. 전쟁

19) 신경규, 「한국교회의 문제와 과제: 장기적 교회성장을 위하여」, 『개혁주의교회성장』 3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2008).

20)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1999).

21) 신경규, 『개혁주의교회성장』, 17.

22) 이진구,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236.

23) 홍영기, 『한국의 교회개혁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62.

이후 겪어야 했던 빈곤과 불안,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돈과 불안정,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집중현상 등은 이 시기의 교세가 급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sup>24)</sup> 급성장한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개척의 방식을 통하여 설립 및 발전되었다.

개척교회는 교회의 개척을 위한 준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매우 열악한 장소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시작하였다가 규모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발전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확장한 교회이다 보니 개척을 주도했던 목사나 그를 도왔던 가족들이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초기에는 주인의식이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것이 목사 개인의 소유권 개념을 발생시키고, 이는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운영을 하는 단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작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쟁의 주요한 근원으로 기능한다. 목사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운영과 신에게 바치는 공물(貢物)이라는 신앙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대형화, 세습, 사회적 고립, 개교회주의, 사회참여의 부재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대형교회는 정기적으로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대규모의 조직체로서 담임목사들은 이러한 규모를 바탕으로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한국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중심적 교권구조는 장로제도의 전통과 양립하지 않는다. 칼뱅(John Calvin)에 의해 발전된 장로교 제도는 그에게 사사받은 존 녹스(John Knox)에 의해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장로교회의 모교회가 되었다. 이후 스코틀랜드의 후손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이주하면서 장로교가 전파되었고 19세기중반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장로교단이 시작되었다.<sup>25)</sup> 감리교와 같은 다른 교단 역시 장로제도를 도입하여 교회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장로교단에서 장로는 교인들이 뽑은 대표자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교회를 감독하고 재정을 관리, 감시하며 교회의 인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담임목사와의 협력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이다. 담임목사제도 하에서 교회 내의 세력균형을 위하여 장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근본취지와는 달리 많은

24) 유병용, 「한국교회 교회개혁 역사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6 (2011), 226.

25) 이상규, 「한국장로교 100주년, 신학적 고찰」, 『개혁논총』 22 (한국신학회, 2012).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운영구조는 담임목회자를 위시하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등의 순서로 되어있고, 장로가 교인들을 대표한다는 대의성에 중점을 두고 장로를 거의 종신화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sup>26)</sup> 이것은 권위주의적 담임목사제도와 더불어 장로라는 또 다른 권력기구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고 장로는 담임목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보다는 담임목사의 권위아래 하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 2. 세습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세습은 많은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가 아들 김정석을 후임자로 선정하였고, 같은 교단이자 김선도 목사의 동생인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도 2006년에 자신의 아들 김정민에게 목사 자리를 세습하였다. 임마누엘교회의 김국도 목사는 아들 김정국목사에게 세습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빚고 있으며, 소망교회의 박선희 목사는 담임목사 2003년 은퇴를 앞두고 아들 박요셉을 담임목사로 세움으로써 변칙 세습의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 외에도 아들뿐만 아니라 맏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대형교회의 담임목사들은 대부분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출발하여 오늘날의 성공을 거둔 지도자들이다. 은퇴 후에도 교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권위주의적이고 사적인 방법으로 교회운영을 아들에게 세습해주는 논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sup>27)</sup>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재벌기업과 대형교회는 매우 유사하다. 마치 재벌총수가 친인척과 자식들에게 기업을 분할하듯이 그들도 교회와 지교회를 사유화된 재산으로서 상속과 증여를 당연시 하고 있다.<sup>28)</sup> 교회 세습을 크게 구분하면, 직접적으로 아들 등의 직계존속 등에게 물려주는 혈연적인 세습과 혈연관계는 아니더라도 원로목사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인물에게 교회를 담당시키는 권위의 세습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원로목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종신토록 연장시키려고 할 때 내부적 갈등이

26)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참고.

27) 배덕만, 「역사신학:한국교회의 세습-그 뒤틀린 역사」, 『신학과 선교』 43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2013), 86.

28) 나이영, 「교회 세습 문제, 상식에서 생각하자」, 『기독교 사상』 646 (대한기독교서회, 2012), 276.

더욱 커지기도 한다.<sup>29)</sup>

교회세습은 교회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마치 대기업의 경영권이 세습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회적 차원의 도덕성 시비로 발전되고 있다. 물론, 작은 교회나 지방 소도시의 가난한 교회 등에서는 아버지가 어렵게 개척한 교회를 아들이 계승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의 세습이 될 것이다. 때로는 유능함이 검증되어 교권을 상속 받고, 그 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 특히 한국교회의 세습은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한 후에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속에서 개혁이나 변화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장로교회(PCUSA)와 감리교회(UMC) 등은 모두 퇴직한 전임목사가 해당교회를 떠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현직목사와 원로 목사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3. 대형화

한국교회의 최근 추세 중 하나는 대형화이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형교회는 주변의 작은 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이며 대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sup>30)</sup>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본 교회 외에도 전국에 31개의 지교회를 거느리고 있고 그 교인이 자그마치 78만 명에 달한다. 안양에 본당을 두고 있는 동생 조용목 목사의 은혜와 진리 교회는 21개의 지교회에 교인이 30만명으로서 결국 형제가 연합하여 인구 100만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셈이다. 그 외에도 형제목사로 유명한 감리교의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김국도 목사도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장남 김선도는 7만 명의 광림교회, 차남 김홍도는 10만 명의 금란교회, 삼남 김국도는 만 명이 넘는 임마누엘교회를 세웠다. 개신교가 한국으로 전래되고 백 년 남짓한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주일 출석 성도의 수가 1만 명이 넘고, 매주 헌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초대형 교회가 무려 20개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교인의 수만 무려 150만 명이 넘게 되었다.<sup>31)</sup>

29) 김광식, 「교회세습에 관하여」, 『기독교 사상』 44(12) (대한기독교서회, 2000), 214.

30) 신호균,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실과 실천적인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로고스경영연구』 5(1)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7), 13.

교회의 대형화 현상에서 한국교회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물량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차원에서의 물량주의란 교회가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과 수치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확장하는 데에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sup>32)</sup> 대형교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물적, 인적, 영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신자들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끌어들이며 대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sup>33)</sup> 교회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라는 세속적 문화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인들은 성스러운 교회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물량주의라는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sup>34)</sup>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가 성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으로 교회의 예산규모, 교인 수, 교회건물 크기 등을 중요시하며 담당 교회의 외관상 규모가 커야하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교계사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이나 받는 대우, 처세가 상승한다고 믿고 있다.<sup>35)</sup> 일반 신도들 또한 자신의 신앙심 정도를 금전적인 성공으로 평가받겠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교단내의 정치적 상황들이 더해져 교단 내의 선거에서 돈이 살포되는 등 여러 가지 비리들로 얼룩지고 있으며 성전을 가꾸고 교인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 아래 교회건물자체에 집착하여 거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그 내부 또한 화려하게 꾸미면서 소비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물량주의가 신학적으로 정당화되고 장려된 것은 교회성장론과 관련이 깊다. 미국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성장론은 1970년대에 한국 교회로 유입되어,<sup>36)</sup> 교회의 성장은 그것이 양적이든 지리적, 인종적 성장이든 바로 신의 섭리로 주관된다는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신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이해되고 교회의 양적 성장이 신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의 내용적인 면보다는 예배의 형식만을 강조하고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대형화의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

31)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6.

32)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8), 99.

33) 정용암, 「한국교회의 문제점 이해와 교회개혁자의 개혁준비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1 (2006), 4.

34) 이원규,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09.

35) 양소지, 「종교계비리: 교회는 대형화, 목자는 치부」, 『한국논단』 83(1) (1996), 177.

36) 이원규, 『한국 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4), 185-189.

는 것에서 한계를 느낀 대형교회들이 그들의 재정적 기반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교회의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현상이 증대하면서 작은 교회들의 물적 토대를 흡수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 간 수평이동을 가속화 시키고, 교회조직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경제구조적 위계화를 촉진한다.<sup>37)</sup> 특히, 대형교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점식 교회를 지역별로 개척하여 먼 거리의 교인들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분점식 교회는 대부분 본 교회에서 목사가 파송되는 형식을 취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독자적인 발전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대형교회 성장의 저변에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의 경제적 발전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깔려있다. 한국사회는 전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분단, 권위주의 정권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등에서 발생한 공동체의 상실, 정체성 위기, 불안, 상대적 박탈감등을 경험하였다. 한국사회에 기독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특수성은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관계성을 설명한 대표적 논의가 ‘성령운동’이론이다.<sup>38)</sup> 성령운동은 일종의 교회 부흥을 위한 운동으로서 부흥회, 신유, 방언 등을 통한 성령체험을 강조한다. 이런 운동들이 한국교회의 양적 팽창주의와 결합하여 초대형교회들을 만들어 내는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성령운동은 개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정신을 제공하여 사회적 정체성 위기를 해결해주었으며, 한국인의 전통적 기복신앙에 부합하여 개신교가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서우석 1994). 이런 면에서 한국 개신교의 급성장의 축약관이 대형교회의 성장과정이며 성령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파나 신앙운동이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대형교회의 성장 사례는 한국 개신교의 성장 전반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4. 재정관리

한국의 개신교는 짧은 세월동안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 하며 발전, 확대되어왔다. 개신교의 역사상 한국처럼 급속하게 전파되고 성장한 나라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한국의 전쟁, 분단

37) 이혁배, 「한국교회의 행태와 전망, 그리고 과제」, 『신학사상』 146 (2009).

38) 서광선 외,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순복음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대화출판사, 1981).

등의 역사적 특수성과 한국인의 정서와 기복신앙에 적응한 개신교의 토착화 등을 들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제도나 법 등이 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한국개신교 또한 급격한 양적, 물적 확산 속에서 내외부적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교회재정관리로 인한 갈등은 크게 몇 가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교회가 비영리 단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하여 친인척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한국교회의 발전과정상 현금 사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처리 절차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셋째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되어진 종교공동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이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재정관리가 소수에 의해 독점될 수 있다. 특히 교회 재정은 외부의 감사나 일반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현금의 형태가 대부분 현금이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수납과 보관 등에서도 분실 및 유용될 여지가 많다.

교회가 사회의 일반적인 집단들에 비해 물질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지, 심지어는 교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교회회계는 외부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 감사제도 역시 없다는 점에서 투명한 교회재정관리는 내적 의지가 없는 한 매우 어렵다. 물론 개신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단체가 영리기업에 비해 회계상의 신뢰도나 투명성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은 한국사회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교회의 재무관리는 당회가 감독하고 집사들이 주축이 되는 제직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결과는 공동회의를 통해 교인들에게 알리고 승인 받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회계에 대한 정보가 교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가 재무제표 공개를 제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부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다.<sup>39)</sup> 이러한 회계정보 공개의 제한이 교회와 교역자들이 교인과 일반인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정법상 교회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법인의 경우 내부감사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수준의 정도이므로 교회재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일반 이해관계자가 알기는 매우 어렵다.<sup>40)</sup>

39) 방인성, 「종교재정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투명사회를 위한 교회재정의 투명성확보」, 『종교문화연구』 7 (한신인문학연구소, 2005), 37.

40) 이연희, 「종교단체의 회계 및 세무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기독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한편, 대형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교회가 주체라는 이유로 비과세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카페, 문화체육센터, 사회적 기업과 성직자의 과세문제는 한국교회의 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들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교회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대형교회의 재정운영이나 회계제도에 대한 공적 감시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에 의한 관련 법률 정비와 감독의 강화는 사사화된 교회의 탈사사회 현상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정교유착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례는 역시 정치와 종교의 지속적인 유착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침략 속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민족운동에 연결되어 있었고,<sup>41)</sup> 성탄절과 명절에 교회는 국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sup>42)</sup>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명성황후 시해 참변 속에서 정동교회에 모여 합동 추모예배를 올리면서 서거를 애도하였고, 아관파천으로 피신했던 고종의 환어를 환영하기 위해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모여 도로변에 늘어서서 충성시위를 한 일도 있었다.<sup>43)</sup> 이렇듯 초기 기독교인들은 시대의 특수성에 맞추어 애국운동과 독립의식 고취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였다. 특히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행해지는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제권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에 교회와 목회자 및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44)</sup> 기독교의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를 통해 일반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시각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향후 한국기독교의 발전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해방을 맞이한 후, 남한 교회는 미군정 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41) 박응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교회와 국가관계를 중심으로」, 『장로교회와 신학』 (한국장로교신학회, 2008).

42)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7), 129-131.

4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216.

44) 박응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교회와 국가관계를 중심으로」, 189.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의 수백만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 오늘날 한국개신교를 대표하는 장로교 양대 교단(통합과 합동)의 영락교회나 충현교회처럼 다수의 장로교 계통 교회들이 건립되었다.<sup>45)</sup> 1970년대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졌다. 산업화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목표로 앞세운 군사독재정권에 대하여 보수진영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앞세우며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였고, 진보진영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당시의 상황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통치기간까지 이어진다. 진보진영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동안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대규모 전도집회를 통해 교회성장을 이루었다.<sup>46)</sup> 그동안 소수 종교로 인식되어 왔던 기독교는 단번에 100만 명이 모이는 대형집회를 열면서 다수종교로 재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집회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교회의 대형화로 인해 인적 및 물적 자원에 기초한 정치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보수 개신교(충현교회)의 장로인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선거의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역사적으로 항상 친여적 속성을 띤 불교계의 대표적 종파인 조계종 집행부 세력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장로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이용하여 개신교의 보수 진영과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진보진영으로부터 동시에 정치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장로교 통합 측의 인명진 목사와 같은 인물들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sup>47)</sup>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 대형교회를 축으로 하는 보수적 교회세력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좌파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세력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로 보수적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적극적인 정치공세에 나선다. 이후 소망교회 장로출신임을 강조하며 기독교세력의 큰 지지를 얻었던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현재의 한국교회는 사회 내에서 큰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공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종교가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조찬기도회와 같은 정례화된 정치적 종교 행사라든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사학법 폐지를 위한 운동에 기독교계의 조직적 반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기

45) 김성건,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참여: 사회학적 비판」, 『교회와 신학』 (2004), 28.

46) 이은선, 「한국교회와 정치」, 『장로교회와 신학』 5 (한국장로교신학회, 2008), 228.

47) 김성건,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사회적 고찰」, 『2009년 상반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416.

독교 정당설립과 교계의 정치집회 개최 및 정치 세력화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와 정치계의 정경유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기독교계의 정치참여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다시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기독교 내에서 공론화 되고 있다.<sup>48)</sup>

#### IV.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사사화

제 3 장에서 예로 든 대형교회의 주요한 이슈들은 단지 몇몇 교회 또는 소수 성직자의 문제로 제한되어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사회에 활동하는 종교조직 전반 또는 종교성 일반의 문제로 분석의 범위를 높여서 거시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사화 또는 탈사사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종교와 사회의 관계를 ‘종교적 사회-세속사회-탈세속사회’처럼 주로 단선적이고 분절적인 세속화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대형교회를 둘러싼 주요한 사회적 쟁점들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이론적 한계를 보여준다.

먼저, 종교사적 관점에서 교권의 세습화, 독점화, 지배정권과의 유착 관계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역사적으로는 원시부족 종교부터 서양의 중세 로마가톨릭,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와 조선의 유교처럼 수백 년 또는 수천 년간 종교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종교집단들의 일반적 모습이었다. 대표적으로 최근 종교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처하는 학자들이 제기한 ‘황금시대 (Golden Ages)’의 허구성에 대한 주장은 종교와 사회의 일직선적 관계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sup>49)</sup> 그들 주장의 학문적 참신성은 중세시대가 종교적으로 황금시대였다는 기존 세속화론자들의 주장이 사실

48) 장규식, 「군사정권기 한국교회와 국가권력: 정교유착과 과거사 청산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2006), 103-132.

49) 세속화 진영의 반론은 Steve Bruce, “The Pervasive World-View: Religion in Pre-Modern Britai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8(4) (1997), 667-680; “Secularisation, Church and Popular Religion.”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62(3) (2011), 543-561 참조.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장은 Rodney Stark and L. R. Iannaccone, “A Supply-Side Reinterpretation of the Secularization in Europ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3) (1994), 242; William H. Swatos and Kevin J. Christiano, “Secularization Theory: The Course of a Concept.” *Sociology of Religion* 60(3) (1999), 209-228를 참조할 것.



은 학자들의 소박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내재한 종교성이라는 특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그렇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시장의 종교적 수요가 안정된 것이라는 가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의 세속화와 탈세속화, 종교의 사사화와 탈사사화 등은 사적영역에서든 공적영역에서든 종교와 사회의 수많은 복잡한 관계성 중에서 하나를 구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현상의 구조적 본질은 아닌 것이다.

둘째, 교권을 친족의 범위 내에서 승계하든 친족의 범위 밖에서 승계하든, 또는 교회재산의 소유형태와 사용법이 개인적 소유로 이해되든 집단적 소유로 이해되든, 공개든 비공개든, 또는 그것의 교리적 정당성이 무엇이든 그러한 사실들은 종교사회학자에게 하나의 종교현상으로 이해되면 충분한 것이다. 카사노바나 하버마스처럼 세속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한 사회의 종교적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점만이 중요할 뿐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세속화가 전제되지 않는 사사화나 탈사사화는 존재할 수 있지만, 세속화 과정의 하나로서 사사화나 탈사사화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종교적 수요가 총량적으로 불변이라는 그들의 전제로 인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서 종교적 수요가 이동할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수요와 세속적 수요의 양적 쇠퇴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50)</sup> 교권승계의 방식과 양태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서구 세속화론자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무속의 세습무와 강신무가 그 종교적 권위와 정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실제로 대형교회의 세습목사와 임명직 목사의 종교적 권위에서 일반신도들은 큰 차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교권을 세습하면서 기존의 교회전통과 운영원칙 등을 충분히 습득한 세습목사가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도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논의를 좀 더 확장해보면 한국대형교회의 교권 독점화 현상은 제도적으로 친족적 권력기반을 가질 수 없는 한국불교조계종이나 한국가톨릭의 교권 승계가 문중(門中)이나 교구(敎區)의 위계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초하고 있는 종교시장의 가설

50) Rodney Stark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78, 193.

적 전제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향한 자기이익의 추구에 충실한 인간성을 인정할 때 분명해진다.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 또는 종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종교적 교리가 무엇이든 교권을 향한 경쟁과 협력, 갈등과 투쟁, 양보와 타협의 복잡한 양태들은 종교인들의 의식이 질적으로 세속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종교적인 동기와 목표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종교적 동기와 경쟁적 이익추구가 종교시장에 참여하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익 증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창한 다원주의 명제(pluralism thesis)의 핵심적 메시지이다. 다원주의 명제는 대형교회의 ‘사사화’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사실은 종교시장에서 각각의 공급자들이 개발하고 계획한 시장전략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점에서 기존의 세속화론과 극단적으로 대조적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제도의 기능적 분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사적 영역으로 쇠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종교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의 전략적 선택들이 새로운 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사화와 탈사사화의 공존은 뒤르켐 식의 성과 속의 이분법적 도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성과 속,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세속화와 탈세속화 현상의 다양한 조합들이 종교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종교적 선호(religious preference)에 따라 자유롭게 취사선택되는 현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다.

넷째, 교권의 독점이나 사유화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비난할 순 있지만, 교권추구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정치권력에 대한 쟁취욕구를 부정하고 정치학이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부정하고 교회세습, 사유화, 대형화 등의 현상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교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교서비스는 평화, 박애, 화해와 같은 종교적 이념과 종교조직 내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대형교회 ‘사사화’ 문제는 종교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누가 어떻게 소유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이는 세속적 도덕기준이나 사회규범에 의존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회운영의 민주화나 교회재산의 소유와 재정 관리의 투명한 운영 등은 오히려 세속적 기준과 규범이며, ‘종교적’ 전통에서는 낯설고 인위적인 것일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볼 때, 교권구조가 민주적이든 독점적이든 그것이 종교적 자원의 관리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치 않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사회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종교적’인지를 스스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의 피상성에 가려져 있는 종교성의 심층적 구조가 어떻게 그리고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회적

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형교회의 특수한 사회적 측면들에 대한 오늘날의 종교사회학적 해석들은 극단적으로 대조적일 수 있다. '세속'의 개념과 대응하여 '종교'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며, 고정되고 불변하는 일반적 기준이나 범위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형교회들의 다양한 사사화 또는 공공성의 측면들이 종교사회학자들의 '종교적' 또는 '세속적' 편견으로 단정되거나 기정사실화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새롭게 다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 논문은 종교사회학에서 일찍부터 논의된 종교의 사사화 문제를 한국대형교회를 둘러싼 주요한 사회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대형교회에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활동을 강화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도 적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고전적 세속화론자들의 주장처럼 한국대형교회들의 외형적 성장과 부패를 사사화의 개념으로 포괄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까지도 한국대형교회들이 공론장(public area)에 깊이 개입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 수쿠크 채권법의 도입과 같은 입법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특정 정당 출신의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설교를 통해 지지하고, 템플스테이를 위한 예산 배정에 집단적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개발정책이나 환경정책 등에서도 대형교회의 종교적 담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교회조직 내 서열구조, 세습화, 재산의 사유화, 정권과의 유착 등 교권 장악을 둘러싼 다양한 양태들은 사사화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복잡하고 유구한 종교권력의 역사적 전개과정의 한 측면일 것이다. 거시적 맥락에서 보자면, 대형교회의 내부적 문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변질되어, 성직자 과세문제처럼 대형교회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일반에 적용 가능한 객관적 입법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오히려 탈사사화된 모습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의 사사화나 탈사사화는 단절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동시다발적이고 양면적인 특질을 갖고 있다. 버거, 카사노바, 하버마스와 같은 세속화론자들이 기존의 고전적 세속화개념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이런 양면성과 복잡성을 깊이 통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속한 일군의 종교사회학자들은 사사화 개념의 수정

이 아니라 이론적 개념의 틀로서 사사화를 포기하였다. 그것은 사사화의 이면에 깔린 인간의 이기성(selfishness)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불문하고 이를 종교적 담론의 기본 전제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덕적 및 윤리적 가치판단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페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대형교회의 교권을 둘러싼 세습화, 독점화, 사유화는 교회의 양적 규모를 불문하고 일반적인 것이고 심지어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종교사적 관점에서조차 교권의 민주적 기초는 세습적 기초만큼이나 종교적인 것일 뿐이며, 종교시장 참여자들의 자기이익 추구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페러다임을 지지하는 종교사회학자는 전자가 진보적이고 후자는 봉건적이라거나 또는 전자가 합리적이고 후자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

주제어: 한국대형교회, 사사화, 세습화, 교권 독점, 사회진보, 세속화, 새로운 페러다임

원고접수일: 2015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8일

계재확정일: 2015년 6월 15일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6.5.15.  
 <기자협회보> 2013.6.30.  
 <조선일보> 2011.3.24.  
 <한겨레> 2014.8.22.; 2011.3.24.  
 <한국일보> 2013.8.22.; 2014.10.27
- 김광식. 「교회세습에 관하여」. 『기독교 사상』 44(12). 대한기독교서회, 2000.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 1999.  
 김성건. 「한국 개신교회의 정치참여: 사회학적 비판」. 『교회와 신학』, 2004.  
 \_\_\_\_\_.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사회적 고찰」. 『전반기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2009.  
 \_\_\_\_\_.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38(3), 2013.  
 나이영. 「교회 세습 문제, 상식에서 생각하자」. 『기독교 사상』 646. 대한기독교서회, 2012.  
 노치준. 『한국 개신교사회학』.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8.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박응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교회와 국가관계를 중심으로」. 『장로교회와 신학』. 한국장로교신학회, 2008.  
 방인성. 「종교재정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 투명사회를 위한 교회재정의 투명성 확보」. 『종교문화연구』 7. 한신인문학연구소, 2005.  
 배덕만. 「역사신학: 한국교회의 세습-그 뒤틀린 역사」. 『신학과 선교』 43,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신학연구소, 2013.  
 서광선 외.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순복음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대화출판사, 1981.  
 서우석. 「중산층 대형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28, 1994.  
 신경규. 「한국교회의 문제와 과제: 장기적 교회성장을 위하여」. 『개혁주의교회성장』 3.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2008.  
 신호균.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실과 실천적인 해소방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로고스경영연구』 5(1).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7.  
 양소지. 「종교계비리: 교회는 대형화, 목자는 치부」. 『한국논단』 83(1), 1996.

- 유병용. 「한국교회 교회개혁 역사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6, 2011.
- 이만열. 『한국기독교사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7.
- 이상규. 「한국장로교 100주년, 신학적 고찰」. 『개혁논총』 22. 한국신학회, 2012.
- 이연희. 「종교단체의 회계 및 세무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기독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2012.
- 이은선. 「한국교회와 정치」. 『장로교회와 신학』 5. 한국장로교신학회, 2008.
- 이원규. 『한국 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4.
- \_\_\_\_\_.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_\_\_\_\_. 「사회변동과 한국교회의 미래 -양적 및 영적 성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62, 2008.
- \_\_\_\_\_.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의 과제는 무엇인가? : 공동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649, 2013.
- 이진구.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당대비평』 12, 2000.
- \_\_\_\_\_. 「종교와 공공성: 미국의 문화전쟁과 “기독교미국”의 신화」. 『종교문화비평』 26, 2014.
- 이혁배. 「한국교회의 행태와 전망, 그리고 과제」. 『신학사상』 146, 2009.
- 장규식. 「군사정권기 한국교회와 국가권력: 정교유착과 과거사 청산 의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2006.
- 정상근·송재룡. 「한국의 ‘가족주의습속’이 시민의 ‘시민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N 시민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115, 2011.
- 정용암. 「한국교회의 문제점 이해와 교회개혁자의 개혁준비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1, 2006.
- 장형철. 「종교와 사회적 자본- 한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7(1·2), 2013.
- 정태식. 「공적 종교로서의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현상과인식』 33(1·2), 2009.
- 최우영. 「한국종교단체의 특징: 개신교회의 성장과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2003.
- 최현중.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종교와 문화』 26, 2014, 73-98.
- 한완상. 「교회의 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

- 과 구조: 순복음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대화출판사, 1982.
- 홍영기. 『한국의 교회개혁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 Berger, Peter L. *The Sacred Canopy*. New York: Anchor Books, [1967]1990.
- Casanova, Jose. *Public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_\_\_\_\_. "Rethinking Secularizatio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Hedgehog Review* 8(1-2). 2006.
- \_\_\_\_\_. "Public Religions Revisited," in *Religion: Beyond a Concept*. ed. by Vries H. d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8.
- \_\_\_\_\_. "The Religious situation in Europe," in *Secularization and the World Religions*. ed. by Wiegandt K, Joas H. and Skinner A.,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9.
- Habermas, J. [1962]2001.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공론장의 구조 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역), 서울: (주)나남출판.
- \_\_\_\_\_.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4(1). 2006.
- \_\_\_\_\_. "Notes on Post-Secular Society," *New Perspectives Quarterly* 25(4). 2008.
- Köhrsen, Jens. "How religious is the public sphere? A critical stance on the debate about public religion and post-secularity," *Acta Sociologica* 55(3), 2012.
- Luckmann, Thomas. *The Invisible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74.
- Meyer, Birgit and Annelis Moors (ed.). *Religion, Media, and the Public Spher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5.
- Stark, Rodney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Abstract

## An Interpretation of 'Privatization' of Korean Megachurches In Terms of New Paradigm

Kwangsuk Yoo, Daniel Connolly, Andrew Eungi Kim

Protestantism is the second largest religion in Korea with almost nine million followers or nearly 20 percent of the country's 50 million people. That is, about one in every five South Korean is Protestant. Its growth had been particularly pronounced from the early 1960s to the end of the 1980s, the period of the country's remarkable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Since the early 1960s, when Korea's Protestants scarcely topped the one million mark, the number of Protestant Christians increased faster than in any other country, nearly doubling every decade.

The remarkable growth of Korean Protestantism, however, has not been without problems. These problems have been discussed in terms of 'privatization' derived from secularization thesis. As this paper shows, one of the most glaring problems has been the structure of the church in which the senior pastor has too much power, with the role of church elders largely relegated to that of supportive role rather than supervisory or monitoring role. Another problem has been an over-emphasis on church growth has bred the perception that bigger is better, leading many churches to devote practically all of their resources to achieving growth of church members. Other problems of the church include the lack of transparency in financial matters, cronyism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the senior pastorship being passed down to the son.

This paper tries to show how the 'privatization' phenomena of Korean mega-churches can reinterpreted as a mixture of religious



privatization and de-privatization, secularization and de-secularization, and private and public religion in terms of the new paradigm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Key Words: Korean Megachurch, Privatization, Hereditary Pastor, Secularization, Monopolized Church Leadership, Social Progress, New Paradigm